

# Aēsop.

안녕하세요, Future Fables by Aesop입니다. Aesop의 Future Fables는 어른을 위한 우화 시리즈로 삶의 교훈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Literary Hub와 함께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디아 밀레의 <버터플라이 맨>인데요. 리디아 밀레는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유명한 작가로 뛰어난 언어 사용과 발랄하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잘 알려졌죠.

오늘의 우화를 들어보세요...

한때 나는 거의 지렁이 같았던 한 남자를 알았다. 하지만 더 밝고 털이 더 많았다. 또한 반점이 있고 가느다란 다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을 수 있었다. 지렁이와는 다르게 한마디로 그는 애벌레였다.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항상 먹고 있었다.

애벌레 남자에게는 친구가 많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색색의 반점으로 치장하고 많이 먹었다. 그들은 나뭇잎과 줄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각자 좋아하는 숙주 식물이 있었다. 맛있고도 편리한. 때로는 많은 애벌레가 같은 숙주 식물에 모여들곤 했다. 그들이 떠난 뒤에는 구멍이 송송 뚫린 레이스처럼 보이는 먹어 치운 나뭇잎으로 그들이 지나간 길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나와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내 쪽을 향해 엉뚱한 말을 하곤 했다.

그는 나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이 진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새를 꿈쩍이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새 그림자만 봐도 움츠려들 정도였다. 멀리서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거나 새의 울음소리, 까악까악 소리, 깃털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새 동지가 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알 수 있었다.

둥지 안에 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알들에서 더 많은 새들이 부화한다.

그의 친구를 잃었다면, 그 뒤에는 대개 새가 있었다. 그는 결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새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친구가 사라질 때마다 그는 아마 바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면 비. 아니면 심지어 불. 바람과 비는 흔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불도. 때때로.

바람이나 비가 친구를 옮겨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 남자는 말했다. 네가 눈치채지 못하는 새에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나에게 장담했다. 너 역시 아삭아삭 먹느라 바빴으니까. 그리고 실종된 친구는 어딘가 다른 식물에서 먹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평화롭게 살 찌우기 과정으로.

그럼, 나는 화제를 바꿨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을 찌우니?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위해?

그래, 왜 항상 살을 찌우고 있어?

글쎄, 당연히 뚱뚱해 지려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 적이 있다. 충분히 살을 찌우자마자 그들은 아름다운 실크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렀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애벌레 남자는 꽤 오랫동안 뚱뚱했었다. 근사하게 뚱뚱하다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어떤 유충이라도 되고 싶을 만큼 뚱뚱한.

하지만 정말로 똥똥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내가 집요하게 물었다.

그냥 똥똥한 상태로 있는 거야. 바보처럼 굴지 마. 그가 말했다.

나는 쥐 아줌마를 방문하기 위해 잠시 떠나야 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숙주 식물 근처에서 새 한 마리만 있었고, 그 굴뚝새는 부리로 조약돌을 쪼고 있었다. 끈기 있게 땅을 긁고 있었다. 딱정벌레만, 그가 구시렁거렸다. 딱정벌레, 딱정벌레, 딱정벌레.

애벌레 남자를 먹은 건 아니지? 내가 물었다. 아주 통통한 녀석?

내가 누굴 먹었는지 몰라, 굴뚝새가 말했다. 정말 알려줄 수 없어. 그들 모두 맛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전부 맛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를 못 봤지?

그들 중 마지막 애벌레가 하얀 침대로 들어갔어. 지금은 딱정벌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 나는 항상 그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말했다.

몇몇은 계속 먹기를 원하니까, 부정하는 뉘앙스로 굴뚝새가 말했다. 그들은 날개가 사형선고라는 걸 알아. 그들에게 날개는 오래 가지 않아. 이것처럼 튼튼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며, 그는 자신의 깃털을 펼쳐 보여주었다.) 일단 그들에게 날개가 생기면, 거의 먹지 않아. 마시고 짹짹만 하는거지.

그래도 그들 중 일부는 상당히 멀리 이동하기도 해, 내가 말했다. 그 섬세한 날개로. 제왕나비를 봐! 그리고 작은멋쟁이나비들도!

그들은 날고, 그런 다음 죽지, 굴뚝새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애벌레 남자가 새로운 몸으로 나타났을 때까지 나는 그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사랑스러운 연노란 색이었고 글로브 말로우 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아, 또 너네, 그가 말했다. 나는 방금 나왔어.

굉장하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음, 전애가 더 보기 좋았어, 그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지금은 너무 삐쩍 말랐어.

하지만 날 수 있잖아! 내가 말했다.

배가 고팠던 때가 그리워. 그리고 나서 느꼈던 포만감도.

이봐, 넌 이제 수분을 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공동체에 되돌려 줘!

나는 예전 일이 더 좋았어, 그가 말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어. 요즘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것 뿐이야.

나는 주변에 있는 그의 친구 몇몇을 알아봤다. 식물들 사이에서 펄럭거리는. 내려 앉기도 했다.

이제는 너를 그렇게 자주는 못 보겠다, 내가 말했다. 이제 네 영역은 하늘이니까.

아, 잘 모르겠어. 나는 언제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새들은 조심해, 내가 말했다. 몇몇 새들은 여전히 너를 덤석 낚아채는 데 관심이 많아.

솔직히, 버터플라이 맨이 말했다. 그의 노란 날개가 떨렸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우화는 아무리 변화를 부정해도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Future Fables by Aesop은 Literary Hub가 함께합니다. 주제곡 작곡은 딘 블런트, 팟캐스트 믹싱, 디자인, 마스터링은 Unit의 한나 웹스터였습니다.